

2017 전주국제영화제, 관객 충성도 높다

방문객 대상 조사결과... 타 영화제 참여 관객 79.1%로 영화 마니아층 참여 높아 지역별로 서울 40.4%, 전북 23.1% 순으로 높아 · 처음 참여횟수 2015년보다 1.8% 늘어

2017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충직)가 지역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마당은 12일 발표한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평가보고서'를 통해 전주국제영화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성장을 거듭하면서 전체적으로 관객들의 충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열린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영화제 발전방안을 모색하

기 위한 것으로, 조사는 영화제를 방문한 관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방식은 교육 받은 전문 조사를원을 통한 개별 직접면접방식을 통했다.

조사대상 관객 중, 타 국제영화제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관객은 79.1%로 전주국제영화제가 영화마니아층의 참여가 높은 영화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영화제 관람횟수는 1-2편이 20.3%, 3-4편이 23.5%, 5-6편이 16.7%, 7-8편은 13.1%, 9편 이상이 25.1%로 나타났다. 이

는 2015-2016년에 비해 관람객들의 1인당 관람횟수가 소폭 증가한 수치.

지역별 관객 분포는 서울(40.4%), 전북(23.1%), 경기권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경기권의 관객들이 전체 조사대상의 61.6%를 차지하여 전주국제영화제의 핵심 관객층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국제영화제 참여횟수를 보면, 처음 참여한 관객은 2015년 43.9%에서 올해 45.7%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2-3회

참여한 관객은 32.6%로 소폭 감소했으며, 4-5회 참여객은 12.3%로 소폭 증가했다.

(사)마당은 전주국제영화제가 마니아층이 찾는 영화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주한옥마을 등과 함께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풀이했다.

전주국제영화제에 머무르는 기간은 2-3일이 5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5일도 20.7%를 차지했다. 반면 1일만 머무른 관객은 2015년 20.3%에서 올해는 13.1%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영화제가 이른바 '머무르는 관광'의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내다봤다.

/정해은 기자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보물들을 꺼내 보세요”

KBS TV쇼 진품명품' 출장감정 25일 전주서 촬영... 21일까지 신청접수

“애물단지처럼 취급됐던 향아리가 알고보니 조선시대 백자였다?” 세월 속에 묻혀 있던 물건들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했을 때의 감동과 희열.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오랜시간 장롱 속에서 잠들어 있던 문화예술품들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감동과 희열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은 오는 25일 오후 전당 5층 미니컨벤션에서 KBS 1TV 'TV쇼 진품명품' 출장감정 전라북도 전주시편 촬영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방송은 현장MC 개그맨 문용현씨의 진행으로 그림, 글씨, 도자기, 민속품 분야의 전문 감정위원들이 함께 참석해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고미술품들을 무료로 감정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전문 감정위원으로는 ▲고서화(그림) 진동만 ▲고서(글씨) 김상환 ▲도자기 김준영 ▲민속품 양의숙씨가 각각 감정을 진행하며, 고미술품 외에 화폐와 우표, 수석, 불상은 당일 감정위원이 참석하지 않는 관계로 감정하지 않는다.

'TV쇼 진품명품' 출장감정 물품 접수 및 신청은 21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전략기획팀(063-281-1511) 또는 전주시청 전통문화유산과 문화재팀(063-281-5361)과 문의하면 된다.

'TV쇼 진품명품'은 지난 1995년부터 시작해 22년이 넘게 이어온 장수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예술품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다.

오태수 원장은 “이번 'TV쇼 진품명품' 전주시편 개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지는 방송”이라며 “전통문화 중심도시 전주의 역사와 문화, 고미술품의 진가를 확인하고 발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휴가철, 금요일에도 고창에서 흥겨운 농악 공연보러 가자

고창 '모양마을 사람들' 8월까지 매주 금요일에도 토요일과 같이 공연 진행



한옥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고창의 대표 브랜드 상설공연 '모양마을 사람들'이 휴가철을 맞아 이달부터 8월까지 매주 금요일에도 토요일 공연과 같은 시각 추가 공연을 진행한다.

한옥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전북 고창의 대표 브랜드 상설공연 '모양마을 사람들'이 직장인들의 휴가와 학생들의 방학을 맞아 이달부터 8월까지 매주 금요일에도 토요일 공연과 같은 시각 추가 공연을 진행한다.

공연을 주관하는 (재)고창농악보존회(회장 이명훈)에 따르면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7월 21일, 28일, 8월 4일, 11일, 18일 총 6회 금요일 공연을 무대에 올리게 된다. 토요일 공연은 예정대로 매주 진행되며 공연 시작은 오후 7시 30분이다.

'모양마을 사람들'은 2017년 전라북도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의 고창 대표 작품으로 선정된 미스터리 감성농악으로 버라이어티한 고창농악을 중심으로, 율기놀이, 사자춤 등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작품은 모양마을에 도사가 새로 들어서게 되면서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나무가 배어질 위기에 처하자,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마을 사람들이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마을굿을 치며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가는 이야기를 그렸다.

구재연 책임PD는 “7~8월 직장인들의 휴가와 초·중·고·대학생들의 여름방학을 맞이해 금요일에 추가 공연을 하게 됐다”면서 “볼거리, 놀거리 넘쳐나는 고창으로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라면 시원한 볼거리로 한여름밤 무더위를 날려줄 '모양마을 사람들' 공연을 꼭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양마을 사람들' 공연티켓은 고창 관내 맛집과 숙박업체 31곳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쿠폰북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창여행을 하는 여행객들에게는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한편, '모양마을 사람들'은 전라북도, (재)전북도문화관광재단, 고창군이 주최하고 (재)고창농악보존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고 진농식품, 곡수담고창명주, 스텝협동조합이 협찬사로 참여하는 상설공연으로 5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30분에 고창읍성 내아

서 펼쳐진다.

(우천 시 동리극악당) 여름휴가와 방학이 맞물린 7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는 금요일 공연이 추가 편성된다.

티켓은 인터파크 (<http://ticketinterpark.com/Ticket/Goods/GoodInfo.asp?GoodsCode=17007179>)에서 구입 할 수 있으며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기초문화재단 간 협약 체결

(재)전북도문화관광재단, (재)전주문화재단, (재)익산문화재단, (재)완주문화재단 등 4개 기관은 12일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회의실에서 전북도의 문화예술포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각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이병천 대표이사, (재)전주문화재단 정정숙 대표이사, (재)익산문화재단 이태호 상임이사 직무대리와 (재)완주문화재단의 이상덕 상임이사가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도내 광역-기초 문화재단의 동반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각 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활동에 대한 협력, 공동 협력사업 기획 및 추진, 정보의 교류 등으로 향후 지역문화 발전과 공익사업의 공동 추진체계 구축 등 상호 협력 체계 마련을 위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의 첫걸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공모사업인 '지역문화전진인력 양성사업'에 주관기관과 공동컨소시엄 기관으로 참여하여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정해은 기자

문화예술 명품도시 정읍, 날개를 달다!

연지아트홀 Yeonji Art Hall

개관식 및 기념공연

개관식 2017. 7. 21(금) 18:30 연지아트홀 (정읍시 중앙로 73)
주최/주관 정읍시

개관 공연	7. 21(금) 19:20 아리스 오케스트라 협연	7. 22(토) 19:00 이미연 피아노 독주회
	7. 23(일) 19:00 라스 앙상블 연주회	7. 26(수) 19:00 창작연극 순정미 블루스
	7. 27(목) 19:00 시립합창단	7. 29(토) 15:00 / 17:00 어린이 뮤지컬 년 특별하나다

• 관람료 : 무료
• 관람예약 - 7. 21(금) 당일 선착순 무료입장 가능
- 7. 22(토) ~ 7. 29(토) 티켓링크 사전관람예약 www.ticketlink.co.kr (1588-7890)
• 예약기간 : 2017. 7. 13-7. 28 • 문의 : 정읍시청 문화예술과(063.539.5174)

기획전시 7. 21(금) ~ 29(토) 10:00 공예작품전시